벤처정신, 알래스카와 수어드 폴리(Seward’s Folly)

이남호 원장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문장 단위로 요약하였고, Chat GPT의 도움을 받아 문장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 소감이나 의견 등은 전부 스스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이남호(전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연구원 원장님의 강연은 알래스카의 역사와 벤처정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은 19세기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가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많은 미국 국민과 의회는 이 거래를 "수어드의 바보짓(Seward's Folly)"이라 불렀다. 얼음뿐인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에 알래스카에서 석유, 석탄, 금, 천연가스와 같은 풍부한 자원이 발견되면서 수어드의 결정은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미국 의회는 수어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그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미래를 내다본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현세의 청년들이 추구해야 할 인재상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남호 총장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전북의 현 상황을 이야기했다. 전북은 과거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벤처정신, 즉 도전하고 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정신은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길러져야 하며, 많은 경험을 통해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협동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릴 적 나의 영어 선생님께서는 항상 ‘변화된 환경에 신속한 적응!’ 이라고 하셨다. 이 말을 어릴 적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어린 시절과 달리 현재는 나의 행동을 대변하는 문구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사회의 변화 속도보다 사람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른 사회를 경험하였다. 일개 인간이 누구나 정신만 차리면 사회의 흐름을 넘어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를 지나, 현재는 인간이 단순한 노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가 도래하였다. 여러 대가들의 이야기로부터 이러한 현대 사회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 후로 혼란스러운 사회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발버둥을 시작하였다.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나도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공간은 물론, 시간과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나는 그것을 창의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원장님께서는 많은 경험을 통한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협동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백 번 동의하는 바이다.

원장님께서는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강조했다. 첫째, 현재의 공간을 넘어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공간의 그물'을 벗어나야 한다. 둘째, 현재의 시간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의 그물'을 넘어야 한다. 셋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지식의 그물'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의 뜻을 나의 사고로 해석해보자면, 매일 보던 것, 매일 듣던 것만 반복하다보면 어느 덧 사고는 한 쪽으로 편향되거나 멈출 수밖에 없다. 자꾸 새로운 것을 보고 나의 전공이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해야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인 것 같다.

두 번째로 하신 말의 뜻을 해석해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른 적응’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현재에만 적응하려 노력하다보면, 현재에 적응한 그 시점에는 이미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아우르며 모범생이 아닌 모험생의 길을 강조하신 내용이다. 지금 내가 속한 공간과 현재의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성공한 리더는 주위에 좋은 인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가 필수적이다.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리더는 주변의 인재들과 함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늘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